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 분석 연구: 1995~2009*

Content Analysis of the Treatise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조유현
석사과정 신희용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You Hyun Cho

Master Student : Hee Yong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관련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the treatises published in JKHEA(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In total, 2,136 articles published in JKHEA from 1995 to the first half of 2009 were reviewed. Articles were classified by subject matters, research methods, number of researchers, presence of research fund, language and number of reference. Although it is useful to employ content analysis in reviewing academic articles on human ecology in all journal publications, the sheer size of literature available makes this task nearly impossible. As such, we have chosen JKHEA as a popular representative journal on human ecology. This study presented the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trends and other characteristics in JKHEA. As suc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a snapshot analysis of research on human ecology and future trends.

주제어(Key Words) :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대한가정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연구동향(research trends), 생활과학(human ecology)

Corresponding Author : You Hyun Cho,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hung-Ang University, 72-1 Naeri, Taeduk, Anseong, Kyeonggi-do 456-756, Korea Tel: +82-31-670-3269 E-mail: youhyun@cau.ac.kr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I. 서론

19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가정학계의 전문화를 표방한 변화의 움직임은 많은 대학에서 가정학 관련 학과와 대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정대학(College of Home Economics)의 명칭은 생활과학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으로 변경되었으며 생활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명칭도 가족, 소비자, 식품영양, 아동, 의류, 주거 등 생활과학의 전공 영역들이 학과 명칭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에 복지, 환경, 벤처 등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용어들을 학과 명칭에 접목시킴으로써 전통적 가정학의 특성과 여성중심의 학문이라는 이미지를 쇠퇴시키고 생활과학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과학적 학문으로 새롭게 변모된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적 평판도를 개선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던 생활과학 교육의 핵심 소비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HEIB(Home Economists in Business)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면서 생활과학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가정학의 전문화와 생활과학이 지향하였던 변화의 노력이 가정학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생활과학을 새로운 실천·융합 학문으로 재창조하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가정이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조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Toffler(1980)의 주장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한 UN의 결정, 미래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생활과학 변화의 방향이 가정의 중요성과 특성 및 미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각 대학의 학문단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생활과학대학이 해체되고 생활과학대학의 각 학과들은 유사관련 학과와 통폐합되거나 소속단과대학을 변경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생활과학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생활과학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생활과학이 독립학문으로서 존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과학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생활과학의 현재의 위치를 생각해 보고 미래의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학문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따라 생활과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학회지의 범위가 확대되어 생활과학 관련 학회지를 일시에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생활과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회지를 선정하여 학회지별로 내용분석을 행하고 그 연구결과들을 종합함으로써 생활과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가정학회지 게재 논문에 관한 내용분석을 행하여 생활과학의 변화와 미래의 방향을 조망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생활과학의 원류인 가정학 최초의 학회인 대한가정학회가 1947년 창립된 후 발간한 대한가정학회지는 생활과학의 다양한 연구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가장 대표성 있는 학회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인 KCI(Korea Citation Index)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가정학회지는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100대 학회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과학 분야의 정통성을 지닌 학회지이다. 아울러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대한가정학회지 통권 100호를 계기로 황덕순, 한경미와 홍은실(1995)에 의해 행해진 대한가정학회지 게재 논문 내용 분석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기에 더욱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의 구성과 분포, 연구방법의 활용, 연구자의 수와 연구비 수혜여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생활과학의 전문화에 기인하여 생활과학 관련 학회지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학회지의 종류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분야 분류에 근거하여 생활과학 분야에 속해 있는 학회지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학회지의 연구 분야는 생활과학 이외에도 경제학, 관광학, 교육학, 공학, 법학, 복합학, 사회학,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식품과학, 심리과학, 예술체육, 의상, 자연과학, 지역개발, 환경공학 등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에 특정 시점에서 생활과학 관련 연구들의 특성과 체계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관련 학회지 별로 논문 내용을 정리하거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정찬진, 박신정, 황선진, 1991;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 1995). 특히 소비자학과 가

〈표 1〉 생활과학 연구 분야로 분류된 KCI 등재 학회지 목록

학회지명	발행기관	창간년도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59년
한국영양학회지	한국영양학회	1968년
복식	한국복식학회	1976년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1977년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1980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4년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한국식품조리과학회	1985년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990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1990년
생명과학회지	한국생명과학회	1991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991년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	1992년
복식문화연구	복식문화학회	1993년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대한영양사협회	1995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년
패션 비즈니스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997년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1998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한국의류산업학회	1999년
대한가정학회지(영문)	대한가정학회	2000년

출처: <http://www.kci.go.kr>

정관리학 분야에서 관련학회지나 전공분야의 논문들을 분석 정리하는 시도가 2000년을 전후로 활발히 전개되었다(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9; 김기옥, 유현정, 남수정, 배운정, 하상현, 2000; 송인숙, 2000; 박명희, 2000; 김혜숙, 2000; 이옥, 2000; 정영금, 2000). 또한 가정 복지나 가사노동과 같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가정학을 재조명한 연구들이 행해졌으며(노영주, 허정원, 서지원, 서선희, 1990; 이연숙, 한영선, 김하늬, 2008) 가정과교육관련 연구논문 분석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유인영 외, 2008; 윤인경, 이정규, 김성교, 2005).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한가정학회지의 논문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찬진, 박신정과 황선진(1991)은 의류학 관련 연구의 3대 대표학술지로 간주되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와 복식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중심으로 1959년부터 1990년까지의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생활과학의 원류인 가정학 전반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대한가정학회지의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총 572편의 논문 내용을 분석한 문수재와 이기열(1984)의 연구가 있다. 문수재와 이기열(1984)은 대한가정학회지의 논문 내용 분석을 통해서 가정학의 본질을 고찰하고 한국 가정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정학의 미래를 조망한 바 있다. 이어 황덕순, 한경미와 홍은실(1995)은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1165편의 논문내용을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연구대상과 연구자, 그리고 사용언어, 참고문헌수와 연구비수혜여부 등을 근거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행하여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행하였다. 연구주제 유목별 분포에서 의생활분야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식생활(24.5%), 가족(10.6%), 아동(9.7%), 관리(8.2%), 주생활(7.9%), 가정경제(5.8%), 기타(4.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과 이주리(2004)는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라는 주제 하에 식품영양, 의류학, 아동학, 가족학, 가정관리/소비자학, 주거학과 가정교육학의 7개 분야별로 각 해당 영역별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의 내용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생활과학 전공분야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각 전공분야별로 논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활과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전공 분야 간의 비교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분야별 연구주제의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Ⅲ.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5년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총 151권 2,136편의 논문이었다. 이는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116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내용을 분석하였던 황덕순 외(1995) 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의 구성과 생활과학 전공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문의 연구방법을 주제유목별로 통계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제유목별 연구자의 수, 연구비 수혜여부, 사용언어와 참고문헌 수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의 구성과 전공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분류기준은 2008년에 재편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59호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분류체계의 생활/가정학에 포함된 7개의 생활과학 전공영역분류는 그대로 활용하였고 생활과학 기타분류에 가정과교육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속한 식품 영양분야는 본 분류와 관련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식품과학/식품영양/조리과학/단체급식 및 외식경영/식생활관리 및 문화/식생활이론 및 정책/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는 총 8개 분야 47개의 소분류 체계가 생활과학 표준분류체계로 활용되었으며 이후의 모든 주제유목별 분석에도 8개 전공 분야 분류 기준이 적용되었다.

논문의 연구방법을 통계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구 분석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기옥 외(2000)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분석방법의 분류에 프로그램개발과 사례분석 및 신뢰도 분석 분류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분석을 문헌고찰 분류에 포함시켜 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주제유목별 연구자의 수는 1인/2인/3인/4인/5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전공영역별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수를 파악하였으며 주제유목별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비 수혜 여부를 주제 유목별로 파악하였으며 주제유목별 참고문헌의 수는 한글 참고문헌, 외국어 참고문헌, 웹이나 신문 등을 포함하는 기타 참고문헌으로 분류하여 총합과 각각의 평균 참고문헌 수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학회지 발간현황

1995년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 대한가정학회지 발간현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 6회 학회지가 발간되다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 1회로 발간 횟수를 늘려 연 12회 학회지가 발간되었다. 200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3월과 9월을 제외하고 연 10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 기고물 제외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총 709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823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후 2005년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 총 604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본 연구의 내용분석 대상이 되었던 논문의 수는 총 2,136 편이었다.

2. 연구주제의 구성

연구 대상인 총 2,136 편의 논문을 8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대학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아동분야로 총 57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 게재논문의 26.8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류(22.33%), 소비자(15.31%), 가족(15.07%), 가정자원경영(6.84%), 주거(5.66%), 식품영양

<표 2> 연도별 대한가정학회지 발간현황

년도	권 및 호수	논문수
1995	제33권 1~6호	121
1996	제34권 1~6호	154
1997	제35권 1~6호	146
1998	제36권 1~12호	156
1999	제37권 1~12호	132
2000	제38권 1~12호	157
2001	제39권 1~12호	147
2002	제40권 1~12호	179
2003	제41권 1~12호	172
2004	제42권 1~12호	168
2005	제43권 1~12호	168
2006	제44권 1~12호	178
2007	제45권 1~10호	100
2008	제46권 1~10호	108
2009	제47권 1~5호	50
총 계		2,136

(5.62%), 기타(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부터 1994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의생활, 식생활, 가족, 아동, 관리, 주생활, 가정경제 등의 순으로 주제유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황덕순 외(1995) 논문의 분석결과와는 많이 다르다. 먼저 아동 분야와 소비자분야의 논문 게재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식품영양 분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생활과학 연구 분야에 관한 분류체계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부분적으로 생활과학의 성격변화를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족의 의식주 생활 중심의 가정학 연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태도 및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황덕순 외(1995)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생활분야는 논문게재 비중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품영양 관련 분야에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학회지의 수가 증가한데 기인하는 결과로 예측되지만 부분적으로는 근접학문과의 연관성 증가에 기인한 식품영양 분야 연구들의 성격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각 전공 영역별 전문화와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대부분의 생활과학 전공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 현상이지만 식품영양 분야에서의 변화의 폭이 생활과학 내 다른 전공 분야의 변화 정도에 비해 더 광범위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에서도 생활과학 전공 영역 중 식품영양 분야만 생활/가정학 영역이 아닌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식품영양 분야의 변화를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표 3〉 연구주제의 구성 및 분포

전공 분류	소분류	논문수			총계
		1995~1999	2000~2004	2005~2009	
1. 가정자원경영	1. 가정철학/윤리	8	5	0	13
	2. 가정생활문화	25	8	2	35
	3. 가정경영이론/정책	12	17	5	34
	4. 가사노동/여가관리/생활시간	26	13	9	48
	5. 가족기업/ 공공가정관리	7	8	1	16
	6. 달리분류되지 않는 가정자원경영	0			0
	합계(%)	78(11.00)	51(6.20)	17(2.81)	146(6.84)
2. 가족	1. 가족학이론/정책	26	26	13	65
	2. 가족관계	16	12	13	41
	3. 가족생활사	8	24	11	43
	4. 가족상담/가족생활교육	48	42	39	129
	5. 가족발달	14	19	8	41
	6. 달리분류되지 않는 가족	0	1	2	3
	합계(%)	112(15.80)	124(15.07)	86(14.24)	322(15.07)
3. 아동	1. 아동학이론/정책	12	11	8	31
	2. 영유아 보육	23	36	53	112
	3. 아동발달	50	45	40	135
	4. 아동상담/치료	20	22	16	58
	5. 청소년 발달	24	46	27	97
	6. 부모교육	32	43	56	131
	7. 달리분류되지 않는 아동	0	2	7	9
합계(%)	161(22.71)	205(24.91)	208(34.27)	573(26.83)	
4. 소비자	1. 소비자 이론/정책	5	14	6	25
	2. 소비자 행태	46	57	28	131
	3. 소비자정보/소비자교육	20	33	11	64
	4. 소비문화/트렌드	1	4	1	6
	5. 가계경제/재무	46	39	13	98
	6. 달리분류되지 않는 소비자	0	2	1	3
	합계(%)	118(16.64)	149(18.10)	60(9.93)	327(15.31)
5. 의류	1. 의류학이론/정책	5	15	7	27
	2. 의류설계 및 구성	42	47	36	125
	3. 의류관리	19	27	14	60
	4. 패션문화사/복식미학	20	29	30	79
	5. 패션마케팅	1	22	18	41
	6. 패션소비자행동	42	50	46	138
	7. 달리분류되지 않는 의류	3	1	3	7
합계(%)	132(18.62)	191(23.21)	154(25.50)	477(22.33)	
6. 주거	1. 주거학이론/정책	3	3	2	8
	2. 주거/단지계획 및 디자인	6	10	5	21
	3. 주거환경/친환경주거	6	4	0	10
	4. 주거관리/평가	27	17	9	53
	5. 주거사회/문화	8	12	8	28
	6. 달리분류되지 않는 주거	0	0	1	1
	합계(%)	50(7.05)	46(5.59)	25(4.14)	121(5.66)
7. 식품영양	1. 식품과학	1	7	3	11
	2. 식품영양	5	5	2	11
	3. 조리과학	8	1	0	9
	4. 단체급식/외식경영	2	8	14	24
	5. 식생활관리/문화	21	18	22	61
	6. 식생활이론/정책	0	2	0	2
	7. 기타	0	0	1	1
합계(%)	37(5.22)	41(4.98)	42(6.95)	120(5.62)	
8. 기타	가정과교육	19	14	6	39
	기타	2	2	7	11
	합계(%)	21(2.96)	16(1.94)	13(2.15)	50(2.34)
총계		709	823	604	2,136

〈표 4〉 주제유목별 연구 분석방법

분석방법	가정자원경영 (N = 146)	가족 (N = 322)	아동 (N = 573)	소비자 (N = 327)	의류 (N = 477)	주거 (N = 121)	식품영양 (N = 120)	기타 (N = 50)	계 (N = 2136)
기술통계	109 (74.66)	278 (86.34)	536 (93.54)	303 (92.66)	381 (79.87)	103 (85.12)	118 (98.33)	43 (86.00)	1871 (88.06)
F검증(MANOVA포함)	52 (35.62)	126 (39.13)	260 (45.38)	137 (41.90)	182 (38.16)	26 (21.49)	52 (43.33)	18 (36.00)	853 (39.93)
t-test	39 (26.71)	125 (38.82)	244 (42.58)	106 (32.42)	106 (22.22)	25 (20.66)	48 (40.00)	12 (24.00)	705 (33.01)
상관관계분석	26 (17.81)	119 (36.96)	300 (52.36)	107 (32.72)	68 (14.26)	13 (10.74)	35 (29.17)	9 (18.00)	677 (31.69)
회귀분석	50 (34.25)	119 (36.96)	242 (42.23)	155 (47.40)	75 (15.72)	20 (16.53)	6 (5.00)	8 (16.00)	675 (31.60)
신뢰도분석	29 (19.86)	117 (36.34)	248 (43.28)	69 (21.10)	99 (20.75)	9 (7.44)	13 (10.83)	13 (26.00)	597 (27.95)
검증	25 (17.12)	43 (13.35)	89 (15.53)	72 (22.02)	84 (17.61)	32 (26.45)	53 (44.17)	8 (16.00)	406 (19.01)
요인분석	22 (15.07)	37 (11.49)	89 (15.53)	57 (17.43)	147 (30.82)	11 (9.09)	3 (2.50)	7 (14.00)	373 (17.46)
문헌, 이론, 내용 분석	40 (27.40)	42 (13.04)	29 (5.06)	28 (8.56)	99 (20.75)	23 (19.01)	5 (4.17)	13 (26.00)	279 (13.06)
실험 및 관찰	0 (0.00)	4 (1.24)	19 (3.32)	0 (0.00)	120 (25.16)	9 (7.44)	20 (16.67)	0 (0.00)	172 (8.05)
면접법	10 (6.85)	34 (10.56)	29 (5.06)	19 (5.81)	14 (2.94)	16 (13.22)	4 (3.33)	3 (6.00)	129 (6.04)
경로분석	10 (6.85)	23 (7.14)	34 (5.93)	30 (9.17)	11 (2.31)	2 (1.65)	1 (0.83)	1 (2.00)	112 (5.24)
logit/probit/tobit분석	8 (5.48)	5 (1.55)	11 (1.92)	59 (18.04)	4 (0.84)	5 (4.13)	1 (0.83)	1 (2.00)	94 (4.40)
군집분석	3 (2.05)	6 (1.86)	2 (0.35)	21 (6.42)	51 (10.69)	1 (0.83)	2 (1.67)	1 (2.00)	87 (4.07)
프로그램개발	3 (2.05)	31 (9.63)	19 (3.32)	5 (1.53)	3 (0.63)	3 (2.48)	1 (0.83)	3 (6.00)	68 (3.18)
사례분석	5 (3.42)	17 (5.28)	8 (1.40)	5 (1.53)	7 (1.47)	23 (19.01)	0 (0.00)	0 (0.00)	65 (3.04)
판별분석	2 (1.37)	3 (0.93)	5 (0.87)	10 (3.06)	5 (1.05)	0 (0.00)	0 (0.00)	0 (0.00)	25 (1.17)
공분산구조분석	3 (2.05)	3 (0.93)	14 (2.44)	2 (0.61)	3 (0.63)	0 (0.00)	0 (0.00)	0 (0.00)	25 (1.17)
기타	4 (2.74)	7 (2.17)	20 (3.49)	18 (5.50)	36 (7.55)	4 (3.31)	4 (3.33)	1 (2.00)	94 (4.40)
총계	440	1139	2198	1203	1495	325	366	141	7307
논문당 평균	3.01	3.54	3.84	3.68	3.14	2.69	3.05	2.82	3.42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논문들의 게재시대별 주제의 구성 및 분포를 5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의류와 가족분야의 논문 게재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아동 분야의 논문게재 비중은 2005년도 이후 매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자원경영과 주거 분야의 논문게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학 분야의 논문게재 비중도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소비자학 관련학과들이 생활과학대학에서 분리되어 다른 분야

로 편입된데 기인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생활과학 각 전공 분야의 소분류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영유아보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류분야에서는 패션소비자행동과 의류설계 및 구성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비자분야에서는 소비자행태와 가계경제 및 재무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분야에서는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자원경영분야의 경우 논문게재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여가관리 및 생활시간 분야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식품영양분야에서는 식생활관리 및 문화부분의 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 전공영역별 연구주제의 구성과 소분류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공영역의 급속한 세분화와 전문화적인 흐름에 기인하여 연구의 주제와 관심영역의 중요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은 소비자 행태 분석이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분야의 비중이 증가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과학의 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공 영역별 이론과 정책 관련 부분의 연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의 활용

주제유목별 연구방법의 활용현황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분석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기타를 포함한 19가지 분석방법 분류를 근거로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의 유형과 수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질문지를 활용한 양적·실증분석 연구이었으며, 연구 방법의 활용도는 기술통계, F 및 t 검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영역별로 평균 연구방법의 활용도는 아동, 소비자, 가족 분야의 연구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와 기타 분야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분석 결과에 비해 통계적인 분석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문헌, 이론 및 내용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례분석 연구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인 배경과 분석체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logit/probit/tobit, 판별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등의 활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자 수, 연구비 수혜여부, 사용언어 및 참고문헌

주제유목별 연구자 수 및 연구비 수혜여부와 주제유목별 사용언어 및 참고문헌의 수는 <표 5>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자의 수는 모든 전공 영역에서 2명이 공동 수행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독 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논문 2,136 편 중 연구비를 수혜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698편으로 전체 논문의 32.68%를 차지하였다. 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의 수는 연구비를 수혜하지 못한 논문의 수보다 작았다. 그러나 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의 비율은 황덕순 외(1995)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연구비 수혜 논문 비율 1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대상 전체 논문 중 외국어 논문의 비율은 1.7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황덕순 외(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2.9%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부터 발간된 대한가정학회의 영문판 학회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영문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다른 학회지의 수가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참고 문헌의 수는 한글 참고문헌 17.74편, 영문 참고문헌 14.73편, 기타 참고문헌 0.57편으로 나타났다. 주제유목별 한글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기타분야, 가족과 가정자원 경영 분야 연구들이 비교적 많은 한글 참고문헌을 활용한 반

<표 5> 주제유목별 연구자 수 및 연구비 수혜여부

주제유목수	가정자원 경영	가족	아동	소비자	의류	주거	식품영양	기타	계	
1명 (%)	52 (35.62)	116 (36.02)	187 (32.64)	109 (33.33)	180 (37.74)	40 (33.06)	27 (22.50)	7 (14.00)	718 (33.61)	
2명 (%)	59 (40.41)	151 (46.89)	306 (53.40)	177 (54.13)	208 (43.61)	54 (44.63)	49 (40.83)	33 (66.00)	1,037 (48.55)	
3명 (%)	12 (8.22)	32 (9.94)	56 (9.77)	27 (8.26)	76 (15.93)	12 (9.92)	26 (21.67)	6 (12.00)	247 (11.56)	
4명 (%)	6 (4.11)	9 (2.80)	11 (1.92)	8 (2.45)	9 (1.89)	12 (9.92)	7 (5.83)	3 (6.00)	65 (3.04)	
5명이상 (%)	17 (11.64)	14 (4.35)	13 (2.27)	6 (1.83)	4 (0.84)	3 (2.48)	11 (9.17)	1 (2.00)	69 (3.23)	
총계	146	322	573	327	477	121	120	50	2,136	
연구비 (%)	수혜	62 (42.47)	124 (38.51)	153 (26.70)	117 (35.78)	132 (27.67)	58 (47.93)	40 (33.33)	12 (24.00)	698 (32.68)
	비수혜	84 (57.53)	198 (61.49)	420 (73.30)	210 (64.22)	345 (72.33)	63 (52.07)	80 (66.67)	38 (76.00)	1,438 (67.32)
	총계	146	322	573	327	477	121	120	50	2,136

〈표 6〉 주제유목별 사용언어 및 참고문헌

주제유목	가정자원 경영	가족	아동	소비자	의류	주거	식품영양	기타	계	
사용 언어 (%)	한글	144 (98.63)	317 (98.45)	563 (98.25)	322 (98.47)	467 (97.90)	120 (99.17)	116 (96.67)	50 (100.00)	2,099 (98.27)
	외국어	2 (1.37)	5 (1.55)	10 (1.75)	5 (1.53)	10 (2.10)	1 (0.83)	4 (3.33)	0 (0.00)	37 (1.73)
참고 문헌 (편)	한글	2,918	6,686	10,278	5,729	5,155	1,750	1,953	1,193	37,897
	평균	19.99	20.76	17.94	17.52	10.81	14.46	16.28	23.86	17.74
	외국어	1,549	5,821	13,428	4,063	4,452	669	996	484	31,462
	평균	10.61	18.08	23.43	12.43	9.33	5.53	8.30	9.68	14.73
	기타	76	185	177	278	310	92	38	72	1,228
평균	0.52	0.57	0.31	0.85	0.65	0.76	0.32	1.44	0.57	

면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아동, 가족, 소비자 분야의 연구들이 비교적 많은 영문 참고문헌을 활용하였다. 특히 아동분야의 경우 영문 참고문헌의 활용 평균 편수가 한글 참고문헌의 활용 평균 편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문 작성 시에 많은 영문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학계의 전문화와 생활과학으로의 확대·개편을 계기로 1995년부터 2009년 상반기 동안에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과 제언을 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동안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2,136편으로 1959년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부터 1994년까지 게재 논문 1,165편을 분석하였던 황덕순 외(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연구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관련 학술지의 수와 관련 연구 분야의 다양함을 고려한다면 대한가정학회지 게재 논문의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둘째, 연구주제의 구성과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황덕순 외(1995) 논문의 분석결과와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생활과학 분류 체계의 변화에 기인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생활과학 연구의 성격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대한가정학회지 논문게재 비중에 있어 식생활 분야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품영양학자들의 대한가정학회지에 대한 논문게재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예측된다.

생활과학 연구의 세분화와 전문화 경향이 대세가 되어 가

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제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과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전공영역과 인접한 타학문 간의 상호교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과학이 하나의 독립학문으로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다시 생활과학 전반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전공영역별 연구주제의 구성과 소분류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의식주 중심의 전통적인 가정학 관련 연구들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연구의 주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 행태 분석이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분야의 비중이 증가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 영역에서 이론과 정책 관련 부분의 연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과학 관련 연구들이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으로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학문적 독자성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계분석 의존도가 낮은 문헌, 이론 및 내용분석, 프로그래밍 개발이나 사례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질문지를 활용한 양적·실증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실증분석 연구가 기술통계, F 및 t검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과 같은 제한된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인 배경과 분석체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logit/probit/tobit, 판별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등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활과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과 시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활과학 연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거에 비해 많은 연구들이 연구비를 수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 대상 논문 중 연구비를 수혜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전체 논문의 32.68%를 차지하여 연구비를 수혜하지 못한 논문보다 작았다. 연구비 수혜여부와 연구비수혜 수준은 연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과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과학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선택된 연구 분야에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15년 동안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생활과학의 현황과 미래의 방향을 조망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활과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별, 시대별, 학회지별로 생활과학 관련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생활과학의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의 논의들이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고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기욱, 유현정, 남수정, 배운정, 하상현(2000). 내용분석을 통해 본 소비자학의 연구동향 1980-1999. **대한가정학회지**, 38(4), 49-60.

김용준, 여정성, 하영원(1999).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창간호(1990)부터 9권 4호(1998)까지. **소비자학연구**, 10(2), 113-131.

김혜숙(2000). 1980년 이후 가정관리 분야에서의 가족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43-256.

노영주, 허정원, 서지원, 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문수재, 이기열(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검

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81-198.

박명희(2000). 가정관리 분야연구의 사회적 기여 -실천 학문적 특성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85-202.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47-67.

송인숙(2000). 1980년대와 90년대의 소비자학분야 연구의 추이와 사회적기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17-230.

유영주, 강원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유인영, 배현영, 이종희, 민은혜, 최미선, 조재순(2008). 가정과교육 관련박사학위논문 연구동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239-252.

윤인경, 이정규, 김성교(2005). 한국 가정과교육 연구 논문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4), 55-71.

이연숙, 한영선, 김하늬(2008).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가정학 관련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59-176.

이 옥(2000).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연구 20년의 평가 - 실천적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03-216.

정영금(2000). 가족자원관리학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31-242.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28-37.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2009). <http://www.kci.go.kr>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Toffler, A.(1989).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접 수 일 : 2009년 9월 27일
 심사시작일 : 200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29일